

프로당구 최강은... 월드챔피언십 제주 개막

64명 출전... 17일까지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승부 총상금 남자 4억원, 여자 2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

프로당구 PBA·LPBA 시즌 마지막을 장식할 월드챔피언십이 열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SK렌터카 제주특별자치도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5'가 8일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에서 열리는 월드챔피언십은 한 시즌 모든 정규투어를 마친 뒤 열리는 왕중왕전 격의 대회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시즌 9개 투어를 거쳐 선발된 남녀

선수 64명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상금 6억원(남자부 4억원, 여자부 2억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개막일인 8일부터 13일까지 옛세 동안 PBA와 LPBA 조별리그가 진행되며, 14일에는 16강, 15일 8강, 16일 준결승, 17일 결승전이 차례로 열린다.

대회는 32명이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와 2위가 16강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조별리그는 PBA 5전 3승제, LPBA 3전 2승제로 이뤄지는데 16강과 8강 토너먼트는 남녀부 모두 5전 3승제이며, 4강과 결승전은 7전 4승제다.

PBA에서는 올 시즌 3회 우승자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해대)가 버티는 가운데 시즌 랭킹 2위이자 최근 팀리그에서 SK렌터카 우승을 이끈 강동공과 두 차례 월드챔피언십에서 연거푸 정상에 오른 조재호는 3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LPBA에서는 6연속 우승으로 올 시즌 독주한 김가영(하나카드)이 월드챔피언십 우승을 통해 절대지존의 자리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신진성 제주자치도체육회장, 김영수 프로당구협회 총재,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를 비롯해 선수 및 체육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월드챔피언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으로 당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세계당구인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월드챔피언십에서 선수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령성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SK 새 공격수 용병 '에반드로', 새 용병 '데닐손', 제주SK FC제공

제주SK, 에반드로·데닐손 쌍포 영입

부족한 화력 보강 '기대'

K리그1 제주SK FC가 브라질 공격수를 잇따라 영입하며 2025시즌 상위권 도약을 위한 퍼즐 맞추기를 마무리했다.

제주SK는 지난 8일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반드로(28, Evandro da Silva, 등번호 11)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에반드로는 2017년 프로 데뷔후 브라질과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세르비아 등 주로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는 FK 라드니츠키 1923에서 2024/25 세르비아 수페르리가에서 21경기에 출전해 7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폼을 선보였다.

에반드로는 피지컬(176cm)로 압도하는 공격수의 유형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발인 오른쪽발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주포지션이 센

터포워드이지만 왼쪽 용병, 공격형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어서 김학범 감독의 전술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SK는 브라질 출신 용병 데닐손(24)에 이어 에반드로까지 영입하며 화력 보강을 더하게 됐다.

데닐손은 2021년 브라질 명문 클럽 SE 파우메이라스에 입단했으며 이후 보타포구 FC, AA 인테르나시오나우, 소시에다드 아상 푸테볼, 모토 클럽 데 상루이스를 거치며 경기출전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제주SK는 데닐손이 170cm, 70kg의 다부진 체격과 가속을 더하는 드리블 돌파를 앞세워 측면의 파괴력을 더해줄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유리 조나탄 이탈리아와 함께 브라질 4인방으로 올 시즌 상위권에 도전하는 제주에서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위령성기자



야구팬들이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경기에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양팀 투수들의 호투와 함께 0-0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시범경기 가득 메운 야구팬 '구름관중'

역대 일일 최대 관중 경신

5개월을 기다린 야구팬들이 시범경기 개막과 동시에 야구장을 가득 메웠다.

9일 프로야구 KBO리그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시범경기가 열린 5개 구장에 7만1288명이 입장했다.

KBO는 "시범경기 하루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고 전했다.

시범경기가 개막한 8일 5개 구장에는 6만7264명의 관중이 찾았다. 2015년 3월 22일 6만6785명을

넘어선 역대 시범경기 일일 최대 관중 신기록이었다.

하루 만에 기록이 경신했다. 13년 만에 시범경기가 열린 청주구장에는 한화 이글스-두산 베어스 경기를 '직관'하려는 팬들로 9천석 좌석이 이를 연속 매진됐다.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가 맞붙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오픈한 좌석 2만3063개가 가득 찼다. KBO리그 대표적인 인기팀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가 격돌한 부산 사직구장에도 개막한 1만7890석에 모두 관중이 앉았다. kt wiz와 LG 트윈스가 경기한

수원(1만4057명)과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대결한 창원(7278명)에도 많은 관중이 모였다.

지난해 시범경기가 개막한 3월 9일에는 3만6180명, 3월 10일에는 3만7682명이 입장했다.

당시에는 관중석이 많지 않은 이천에서 경기가 열려, 관중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도 올해 시범경기 관중 수는 놀라울 정도다.

2024년 KBO리그 정규시즌 720경기에는 1088만7705명의 팬이 야구장을 찾았다. 종전 최대였던 2017시즌 관중(840만688명)보다 무려 240만명이나 관중이 증가해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관중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도-필리핀 복싱협회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양국 복싱 저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회장 민경춘)는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복싱협회(회장 로렌조 주니어 알몬테)와 양국 복싱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경춘 회장은 이날 "필리핀복싱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복싱의 국제적인 교류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협회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싱 저변 확대와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몬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필리핀 복싱을 세계에 알리고, 제주 복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협회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한국-필리핀 복싱 발전과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입 업체

<p>제주직항</p> <p>장춘/백두산(북파+서파) 4일, 5일</p> <p>3월 매주 목,일 출발 84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4월~6월 목,일 출발 99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7월~8월 목,일 출발 1,04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제주직항</p> <p>대만 4일</p> <p>매일 출발 72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카오슁 4일, 5일</p> <p>4월 매주 화,목,일 799,0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5월~7월 매주 화,목,일 84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제주직항</p> <p>오사카 4일</p> <p>매일출발 84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동경 3일, 4일</p> <p>매주 수,금,일 출발</p> <p>1,28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부산출발</p> <p>스위트룸, 노움션</p> <p>다낭/바나힐/호이안 5일</p> <p>3월~7월 매일출발</p> <p>71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장사/장가계 4일, 5일</p> <p>4/28일 첫취항 89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5월~7월 매주 월,금 출발 94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북경 3일</p> <p>3월 매주 금,일 출발 29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4월 매주 금,일 출발 79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싱가폴 4일, 5일</p> <p>4월~7월 매주 월,금 출발</p> <p>1,14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특급호텔/아쿠아스파</p> <p>나트랑x달랏 5일</p> <p>3월~6월 매일출발</p> <p>599,5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모두투어 예약센터 가자항공여행사 T. 1544-7535, 747-0404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입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부분별),현지선택관광

고려번호: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주 (전)모두투어에티켓 대표: 우용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번(모두투어 5층 사무실) 등록번호: 202-41-45295 울산광역시: 중구 제33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시: 중구 영보동5길 15번 1414호 기획여행보증보험: 일반여행보증 15억 1414호, 기획여행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기업 출장: 제주항공 교통: 항공/선유저항 숙소: 일교호텔(이성상)을 앞쪽에 중형 숙소: 상봉에 포함된다. 자유여행시(분포동) 최소출발 기준인: 1인(상봉) 상이: 선유(상봉) 상이: 상봉에 따라 선택여행기 가능할 수 있음. 단,관광객 참여하는 자유여행 선택여행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관광객 참여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은 홈페이지(www.motutoo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드 및 기사: 현지 지도 사물(부동산용제외) 부속(미리) 사물에 의해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승인 필요함.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이용료, 관광보험료, 관광민통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모든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